

F1 더 빠르게, 더 뜨겁게

에너지 저장장치 부활·변형 뒷날개 도입 추월기회 늘려

2011년 F1이 돌아오고 있다. 올해 F1 그랑프리에는 에너지 저장장치 부활, 변형 뒷날개 등장 등으로 더 빨라지고, 보다 스피드 넘치고, 더욱 흥미진진한 레이스로 F1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F1은 경주용차(머신)의 새 독점 타이어 공급업체가 등장하고 오는 15일 로터스 르노의 신차 발표를 시작으로 1~2월 중 주요팀들의 2011 머신 발표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3월11일 바레인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10월 14~16일 한국 그랑프리 등 11월27일까지 총 20라운드로 치러지는 이번 F1대회의 주요 세 규정들을 살펴보자.

◇에너지 저장장치 부활=지난 2009년 등장해 화제를 모은 에너지 저장장치(KERS·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s)가 다시 부활한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브레이크에서 발생된 열 에너지를 모아 순간적인 엔진출력 향상에 이용하는 장치다.

2009년 당시 일부 팀이 직선 구간 추월 용도로 활용했으나 장비 무게 부담 때문에 외면받았다. 이 때문에 올해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다만 무게 부담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머신의 최소 무게 규정을 종전보다 20kg 늘린 640kg으로 상향 조종했다.

◇변형 뒷날개로 추월기회 늘어=올해부터 주행중 뒷날개(리어 윙·Rear Wing)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뒷날개는 직선 구간에서는 평평하게 누워있는 형태가 유리하지만 접지력이 필요한 곡선 구간에서는 각도를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다만 뒷날개 각도 전환은 제한적이다. 연습주행이나 예선에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결선 때는 경주 시작 후 2배 이상 주행한 뒤 가능하며 정해진 구간에서 앞 머신과 1초 이하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직선 구간에서 올해 부활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순간 추진력과 동시에 이 기능을 활용해 단 한차례 추월 기회를 살리려는 선수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앞쪽 타이어 폭이 축소되는 규정에 따라 시도됐던 앞날개(프런트 윙)의 각도 변화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피델리 독점 타이어 등장=지난 13년간 F1 타이어의 대명사로 활동한 브리지스톤 대신 이탈리아의 고성능 타이어 제조회사 피델리가 새 독점회사로 진입했다. 1991년 이후 20여년만에 F1 무대에 복귀한 피델리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독점 공급하게 된다.

타이어 규정은 예년과 같다. 다만 레이스 기간에 지급되는 타이어 개수가 종전 14세트에서 11세트로 줄어 팀들의 운영 전략 수점이 불가피하다. F1은 타이어 성능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 타이

2010/2011년 규정 비교

구분	2010년	2011년
머신 무게	620kg 이상	640kg 이상
윙 조정 가능	프론트 윙 각도 조절 가능	리어 윙 각도 조절 가능
사용 타이어	브리지스톤	피델리
기어박스	4경기 연속 사용	5경기 연속 사용
F-덕트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더블 디퓨저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특이 사항	레이스 중 재급유 금지	'예선 107%' 규정 부활

2011년 F1 레이싱 일정

순서	그랑프리	서킷/도시	날짜
1	바레인	바레인 인터내셔널 / 사키르	3월 11일 ~ 13일
2	호주	멜버른 그랑프리 / 멜버른	3월 25일 ~ 27일
3	말레이시아	세팡 인터내셔널 / 쾰라룸푸르	4월 8일 ~ 10일
4	중국	상하이 인터내셔널 / 상하이	4월 15일 ~ 17일
5	타키	이스탄불 파크 / 이스탄불	5월 6일 ~ 8일
6	스페인	카탈루냐 / 카탈루냐	5월 20일 ~ 22일
7	모나코	모나코 / 몬테카를로	5월 26일 ~ 29일
8	캐나다	질 빌리브 / 몬트리올	6월 10일 ~ 12일
9	유럽	발렌시아 스트리트 / 발렌시아	6월 24일 ~ 26일
10	영국	실버스톤 / 실버스톤	7월 8일 ~ 10일
11	독일	니르부르크링 / 니르부르크	7월 22일 ~ 24일
12	헝가리	헝가리링 / 부다페스트	7월 29일 ~ 31일
13	벨기에	스파-프랑코샹 / 스파-프랑코샹	8월 26일 ~ 28일
14	이탈리아	오트모로 나치오날레 몬자 / 몬자	9월 9일 ~ 11일
15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스트리트 / 싱가포르	9월 23일 ~ 25일
16	일본	스즈카 / 스즈카	10월 7일 ~ 9일
17	한국	코리야 인터내셔널 / 영암	10월 14일 ~ 16일
18	인도	제이피 인터내셔널 / 뉴델리	10월 28일 ~ 30일
19	아부다비	야스 마리나 / 아부다비	11월 11일 ~ 13일
20	브라질	조지 카를루스 피시 / 상파울로	11월 25일 ~ 27일

어에 빨리 익숙해지는 팀이 시즌 초반 기선을 제압할 것으로 보인다. ◇예선 107%를 부활=90년대까지 적용되던 예선 107%틀이 새로 부활한다. 107% 틀은 예선 첫 번째 세션인 Q1에서 최고 랩타임보다 107% 이상 느린 선수는 본선 진출을 탈락시키는 제도다. Q2와 Q3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어박스 5경기 연속 사용=비용절감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기어박스 4경기 사용 규정이 더욱 강화돼 올해부터는 기어박스 하나로 5경기를 연속해 쓰지 못하는 선수에게 다음 경기에서 출발 순위를 5단계(그리드) 하락시키도록 했다.

내구성이 더욱 중요하게 돼 팀들의 신형 머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론트 덕트 기술 금지=2010년을 품지했던 프론트 덕트(F덕트) 기술이 금지된다. 맥라렌이 처음 시도해 유력처럼 변진 이 기술은 뒷날개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순간적으로 방해해 공기가 내리누르는 힘인 다운포스를 억제하는 기술이다. 직선 구간에서 F덕트의 공기 흐름을 활용하면 순간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처음 등장해 화제를 모은 더블 디퓨저 디자인도 금지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삼성 7년, 즐거웠고 행복했다”

■ 떠나는 선동열 감독 “대구팬들에 감사 지역감정 해소 자부”

7년간 입었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벗은 선동열(48) 전 감독은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다. 후회 없이 했다”며 이임 소감을 말했다.

선 전 감독은 5일 경북 경산시 경산 불파에서 열린 류중일 신임 감독 취임식에 참석해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2004년 김용우 당시 감독을 보좌할 수석코치로 삼성과 계약한 뒤 2005년 삼성의 제12대 감독에 올랐던 선 전 감독은 그해와 2006년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를까 기대하는 등 6년간 한국시리즈 우승 2회, 준우승 1회를 달성했고 2009년을 빼곤 5년 모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명문구단의 기틀을 잡았다.

2009년 시즌 중 5년 재계약에 성공하며 구단의 큰 신뢰를 받았으나 작년 한국시리즈에서 SK에 무기력하게

4연패,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삼성그룹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직 경질됐다.

선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준승 김용우 전 사장님과 김재하 전 단장님이 물러났을 때 혼자 남는다는 데 죄책감이 들었다. 마음속으로 물러나려 생각했다. 마침 이수빈 구단주를 뵈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7년간 류 감독을 보면서 충분히 감독을 이어받아도 되리라 생각해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선 전 감독은 “코치 1년과 감독 6년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삼성에서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다. 감독에 오르자마자 한국시리즈 우승년 한국시리즈에서 SK에 무기력하게



선동열 전 감독과 류중일 신임감독.

출연수 12년에서 끊겨 반성도 많이 했다. 작년 한국시리즈에서는 졌지만 후회 없이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난 복이 많은 사람이다. 호남 사람으로서 영남에 와 7년을 지내면서 지역감정을 많이 해소했다고 자부한다. 일본에 비하면 대구에서 생활은 너무 편했다. 물론 안티팬도 계시지만 사랑해 주신 팬들도 많았고 너무 좋은 대우를 받고 떠난다”며 대구 팬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승훈 2관왕 질주

5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41회 회장배 전국남녀 빙상경기대회 남자 대학부 1500m에서 이승훈(한국체대)이 질주하고 있다. 전날 3000m에서 우승한 이승훈은 이날 1500m에서 1분51초43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KIA 한기주 1억 2000만원 재계약

내일 곧 재활조 합류

KIA 타이거즈의 투수 한기주가 1억2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5일 한기주가 지난해 1억3400만원에서 1400만원 삭감된 1억2000만원에 연봉도장을 찍었다. 한기주는 “연봉 협상이 끝난 만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전념하겠다”



계약이 마무리 되면서 한기주의 재활 훈련도 본격화 된다.

다. 지난해 재활을 하느라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올 시즌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한기주와의 연봉협상이 이뤄지면서 KIA는 2011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2명중 이용규를 제외한 51명과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침대-100% ITALY

소파-100% ITALY

엔틱좌탁-100% ITALY

엔틱식탁-100%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상무점 오픈

상무점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대로변 푸조전시장 400평) ☎062-382-0022

문화전당점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주) 홍스페이스는 1992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엔틱,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소매 하고 있으며 국산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영업에서 직수입 직영점판매 하고 있습니다.